

모바일 웹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서비스 연구

A Study on Science Technology Service for Mobile Web Service

정혜주, 윤정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Jung Hyeju, Yoon Jungsu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요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웹사이트에서도 모바일 기기의 특징을 살려 새로운 모바일 웹서비스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데 모바일 웹을 이용한 과학기술분야의 빠른 정보 전달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 기술 발전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각 서비스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분석하고 과학기술자커뮤니티사이트인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모바일 웹서비스 도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기존 PC 상에서 제공했던 웹 서비스들이 모바일 웹 또는 앱의 형태로 제공되며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초기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사의 App Store를 중심으로 모바일 웹보다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앱의 발전이 주도적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Device API, html5, WebOS, Web GL, Widget 등과 같은 Web기반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바일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1].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Ⅱ)” 보고서[2]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주로 모바일 앱 보다 모바일 웹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앱과 웹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앱이 주목받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앱은 네이티브 앱의 형태를 띠고, App Store를 통해 배포되지만, 주요 화면 구성은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웹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앱이든 모바일웹이든 하이브리드앱이든 각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게 올바른 방법이다.

모바일 웹의 경우는 쇼핑, 포토, 소셜, 포탈 등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들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과 같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고 그 특성이 명확한 콘텐츠들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모바일 웹으로 구성될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들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자커뮤니티사이트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KOSEN(www.kosen21.org)의 모바일 웹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I. 모바일 서비스 동향

스마트폰은 일반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설치·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으로 ‘손안의 PC’라고 정의된다[2]. 기존 PC로 제공되는 인터넷 정보 및 서비스들이 이제는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 중인 교통수단, 가정, 길거리 및 실외 장소에서도 공급 될 수 있어 정보 생태계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모바일 기기의 이동성, 신속성, 개인화 등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웹서비스들은 검색, 금융, 뉴스, 메일, SNS, 쇼핑, 음악, 게임, 커뮤니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검색 부분에서는 PC와 마찬가지로 구글, 네이버, 다음, 파란, 야후 등이 하이브리드 앱을 구현하여 활발하게 서비스 되고 있다. SNS 부분에서는 Facebook,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이 PC 기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 시켜 모바일 서비스로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모바일 디바이스만의 장점을 살린 카카오톡, 두근두근 등의 서비스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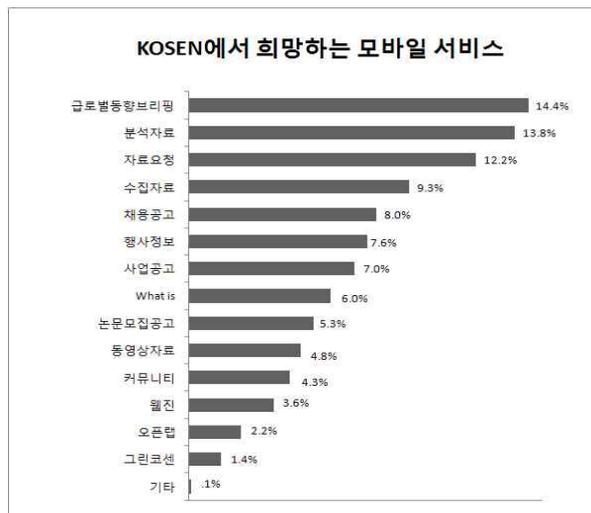
Facebook은 Posting, 사진, 위치기반 Data 등의 사용자 Data 를 얻어내고, 친구추천 및 Push Notification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속을 유도해 내고 있으며, 싸이월드는 국내 대표적인 미니홈피 서비스로서 모바일에서도 사진, 다이어리, 게시판, 방명록 등을 관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댓글, 방명록 및 업데이트 되는 일촌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특히 위치기반 서비

스인 싸이플래그를 제공하여 접속 위치 지역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급속도로 그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을 연결하여 문자형 채팅을 가능하도록 하여 유료로 이용되는 문자서비스를 대체하는 전략을 내세움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끌며 본인의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사용자 만족을 주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국내 및 해외, 성별에 따라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기능을 제공하는 두근 두근 우체통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모바일 서비스의 다양한 양상의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KOSEN의 모바일 서비스 연구

PC에서의 사용패턴이 모바일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사용자들은 웹사이트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기대하게 된다. KOSEN을 모바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웹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모바일의 장점을 살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KOSEN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모바일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해외 과학기술동향을 매일 뉴스형태로 제공하는 글로벌동향브리핑과 KOSEN 전문가들의 분석자료 이용, 필요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요청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KOSEN에서 희망하는 모바일 서비스

설문 결과에서는 큰 선호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KOSEN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What is 지식질의응답도 모바일로 서비스하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과 이동성을 장점으로 살려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된다.

KOSEN 웹사이트에는 정보자료이용, 커뮤니티, 웹진, 블로그, 그린코센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

만 모바일 웹을 서비스하는데 있어서는 1) 빠른 정보검색 기능, 2) 실시간 정보요청 기능, 3) 위치기반 개인화 기능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빠른 정보검색을 위하여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해 다양한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간 정보요청 기능을 위해서는 급하게 필요한 자료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App을 개발하여 편리하게 질문을 올리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답변에 대해서는 Push Notification을 제공한다. 또한 회원정보의 Geo Location Data를 이용하여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회원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구증진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KOSEN의 전문가 분석 보고서의 경우 PDF 자료를 이용할 때 암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모바일 웹에서의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향후 과제 및 결론

하루에도 수백가지의 웹과 앱이 개발되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모바일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은 그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구체화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를 대상으로 모바일웹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모바일 웹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1) 빠른 정보검색 기능, 2) 실시간 정보요청 기능, 3) 위치기반 개인화 기능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글로벌동향브리핑, 분석자료 등의 정보이용과 자료요청, What is 질의응답 서비스로 조사되었다. 모바일기기의 이동성, 신속성, 개인화 특성을 살려 KOSEN의 특성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웹에서의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자 커뮤니티사이트가 될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

- [1] 모바일 웹 컨퍼런스 2011 기획/전략 Pluto media
- [2] 제 3차 인터넷이슈 기획조사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II)” 한국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2
- [3]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www.kosen21.org